

기적소리 대신 한숨소리...KTX 운행 첫날 텅 빈 광주역

하루 운행편수 39편서 23편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승객 평소의 33%·주변 상가 적막...공동화 현실화 상인회 KTX 재진입 등 상권 쇠락 방지 대책 요구

“손님들이 계시는지 주변 식당 한 번 둘러보세요. 식당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호남선 KTX 개통 첫날인 2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은 멈춰선 KTX 기적(汽笛) 대신 상가 주인들의 걱정섞인 한숨소리로 가득했다. 맞이방(옛 대합실) 매표소는 3곳 중 1곳만 운영 중이었으며, 입점 가게 3곳은 오픈 전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하던 맞이방엔 적막감이 감돌았고 광주역 앞 음식점·편의점·호프집 등 상가 20여 곳도 활기를 잃은 듯 한산했다.

평소 같은 손님맞이에 한창 분주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주인들은 식당 안에서 턱을 낀 채 광주역 입구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A식당 주인 김모(50)씨는 취재진에게

식당 출입문 앞에 부착된 열차 시간표를 가리킨 뒤 “광주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이렇게 줄었는데, 장사가 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역을 오가는 열차는 평일기준 39편→23편으로 16편(41.02%) 줄었다.

KTX 정차역이 광주송정역(종착역)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광주역을 오가는 열차는 KTX를 제외한 새마을호(8편)·무궁화호(15편) 등 모두 23편 뿐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역을 찾은 승객 수는 385명. 이는 평소보다 최대 세 배 가량 적은 인원이다. 반면 광주송정역은 3964명이었다.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않으면 주변 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역 주변상가 상인회(가칭)는 이날

광주역 주변 상권 쇠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KTX 호남선 개통 이후 가게 매출이 점차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레일 등에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일부 KTX를 광주역에 재진입 시켜주거나 광주역을 폐쇄한 뒤 복구정사를 이전에 달라는 방안을 광주시와 북구, 코레일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재현 상인회 부회장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열차편수까지 줄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광주역 앞 택시 승강장에 가서 택시가 몇대나 정차돼 있는지 보면 (우리 심정이) 어쩐지 금방 알아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같으면 수십 여 대의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에서 주변 건물까지 50m 이상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있었지만 이날은 고작 한 두 대만 정차돼 있었다. 당번 택시 승강장은 광주역의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2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맞이방(대합실)이 평소보다 훨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역 이용객 수는 385명이었다. 이는 평소의 33% 수준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찰은 돈 받고 뒤 봐주고 변호사는 범행 은폐 돕고

광주 불법 오락실 검은 고리...경찰 등 12명 구속 108명 입건

경찰과 조직폭력배, 불법 오락실간 검은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구속되는가 하면, 법률 자문을 명목으로 불법 오락실 운영과 관련, 범행 은폐를 도운 변호사도 적발됐다. 2009년 광주 경찰의 오락실 뇌물 비리 등 불법 오락실을 중심으로 한 경찰, 조폭간 비리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김모(50) 경위를 구

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38)씨 등 12명을 구속하는 등 10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혐의(범행 도피·교사)로 변호사 최모(42)씨도 적발했다.

김 경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고 업주들에게 오락실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받은 업주들은 단속날 일시적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의 지급까지의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루 최고 1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7개월간 10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변호사 최씨는 업주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1000만원을 받고 법률 자문을 명목으로 바지사장에게 ‘실업주인 것 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간 거짓 진술 대가 및 빚금 대납, 구속될 경우 일정 생활비 등을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노조 성과급 지급 방법 충돌

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과 노조 집행부가 공무원 성과급 지급방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2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구청 공무원노조 집행부 등 10여명이 청장 집무실에 들어와 “성과급 지급을 기존의 방법으로 유지하고 노조와 공작을 멈추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이 옥실과 집기 파손을 수반했다는 서구는 주장했다.

노조가 청장실을 항의방문한 이유는 지난달 31일 5급 이하 전 직원에 직급과 등급(4등급)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된 상여금(200만~500만원)을 노조가 거둬들이려 하자, 분배하는 것을 서구 측이 문 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앞서 임우진 청장은 지급된 상여금을 노조가 회수한 뒤 차액이 적게 재분배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 위반은 물론 성과급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 참가자 징계 등을 간부 공무원에게 주문했다.

노조 측은 그러나 기왕에 입금된 성과급을 노조원 동의 아래 거둬들이 재분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재산 행사로 민행사상 문제 소지가 없고, 이에 참여한다고 해서 노조원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흥건설 자금 담당 간부 체포

검찰, 신대배후단지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중흥건설 자금 담당 간부를 체포하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중흥건설 자금 담당 간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중흥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

료를 분석, 100억원대 수산한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중흥건설 분사, 대표와 회계 관계자 등 자택 3곳,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 분사 경리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천 억원 대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시행사 대표를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렌터카, 청소차 들이받아 2명 숨져

2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제2순환도로에서(풍암동→상무동 방향 500m) 기모(20)씨가 몰던 K5 렌터카가 도로 축대와 청소차량을 잇달아 들이

이 사고로 렌터카 운전자 기씨와 청소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황모(69)씨가 숨지고, 승용차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 기씨가 몰던 차량은 사고 직전 1차로에

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갓길 옆 축대를 2차레가량 들이받아 데 이어 작업을 하던 제2순환도로 소속 청소차량을 추돌한 뒤 멈춰 섰다. 경찰은 운전이 미숙한 기씨가 순환도로 내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 물건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울대리식사당,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리스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 8천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2채 무화과 식재있음(토지310평) 매매가 3억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올수리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원지구 모이원가림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 5천 매매가 3억 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전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 2천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 옆 월 150만 매매가 2억 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2천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 9백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 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오일빌 13평 매매가 55만

010-6670-9800

수원지구 사무실 임대 매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 5천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영신중, 고교 앞 영강초교 앞
-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대지 210평 (1층 6칸)
- 건물(2층2칸), 학원적합

※ 2층주택하면서 상가수익가능

매매가 3억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5백
-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평가 6억6천, 최자가 3억6천
-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90㎡)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5백
- 남구 노대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2천
-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북구 두암동 (3층상가겸 주택) (198㎡, 건물 512㎡)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 광신구 도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자가 3억7천
- 서구 생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자가 3억7천
-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자가 2억 1천
-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2억9천
-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자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북구 일곡동 (1층 패자점)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자가 28억
- 북구 매곡동 (1층 조림사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1억
-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5억9천, 최자가 3억9천
- 장성 삼계면 (2층건물) (토 1088㎡, 건물 631㎡) 감평가 2억5천, 최자가 9천1백
- 담양군 금성면 (3층편선건물) (토 3030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자가 9억9천
-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예식장)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자가 85억
-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1억3천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경매 기본교육 + 실전주주 교육

- 오전반 11시~12시 30분
- 오후반 2시~6시 사이
- 저녁반 7시~9시
- 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경매 물건 추천

- 서구 쌍촌동 (상무4지구) 근린주택 4층 감평가 4억7천 → 최자가 3억7천
- 담양군 금성면 (핀션) 토지 9000평 감평가 27억 → 최자가 9억9천
- 북구 두암동 조건 주택 3층 감평가 3억9천 → 최자 3억9천

062-527-7600
010-7384-7800